

안면신경마비에 한약 치료...한방 우수성 알린다

최근 SCI(E)급 국제학술지 ‘Journal of Inflammation Research(IF= 4.953)’의 4월호에는 현대인에게 자주 발생하는 안면신경마비에 대한 논문이 실렸다. 눈과 입 주변 근육이 마비되어 얼굴이 비뚤어지고 감각에 이상이 생기는 안면신경마비 환자에 대한 한약재 택란의 신경치료학적 효과를 연구한 실험 논문이다. 한의학계에서 요즘 역점을 두는 ‘한방의 과학화’를 보여주는 주요 성과인 이 논문을 발표한 곳이 바로 자생 척추관절연구소(JSR)이다.

한약재 택란, 신경치료 효과 입증
국제학술지 논문 100건 이상 게재
방대한 임상 데이터 기반 연구 진행
시장 선점 위해 개발 협력도 꾸준

●**지난해 SCI(E)급 학술지 논문 100건 돌파**
자생척추관절연구소는 자생의료재단이 1999년 설립한 자생생명공학연구소가 전신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구소는 20년 넘게 한방의 표준화와 과학화에 집중하고 있다. 자생척추관절연구소가 지향하는 ‘한방의 과학화’는 한방치료의 우수성을 현대 의학의 언어로 재해석하는 작업이다.

이번 논문의 주제인 택란의 경우 자생한방병원 안면신경마비 클리닉의 대표 처방인 와사해표탕에 사용하는 주요 한약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안면신경마비 환자는 18만8806명이며 이중 한방진료 환자가 9만9342명이다. 양방진료보다 1만여 명이나 높다. 한방진료에 대한 안면신경마비 환자의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번 논문처럼 진료에 대한 과학적 입증은 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자생한방병원 전경. 안면신경마비 환자용 와사해표탕의 주요 약재인 택란의 신경치료학적 효과 연구논문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김현성 선임연구원, 1999년 설립돼 2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자생 척추관절연구소(위부터 시계방향). 사진제공 | 자생한방병원

자와의 소통에 도움을 주고 한방치료를 세계에 알리는 기본 바탕이 된다.

자생척추관절연구소가 이번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데는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 한의원의 방대한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를 계획하고 시행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모집하는 장기치료 경과에 대한 연구, 대규모 임상 데이터를 활용한 실용적 연구는 자생척추관절

연구소의 큰 특징이다. 또한 임상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에 집중한다. 한약, 약침 등 한방치료법은 임상에서 많이 활용되고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경험적으로 입증됐지만 여전히 연구과제가 많다.

2013년 발표한 자생의 고유치료법 동작침법(MSAT)에 관한 RCT 연구는 급성요통 치료 효과가 진통제보다 5배 높다는 결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해 통증 분

야 학술지 ‘페인’에 게재됐다. 2016년 국제학술지 ‘스파인’에는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환자 128명을 5년간 장기 추적 관찰한 논문이 실리기도 했다.

지난해는 SCI(E)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100건을 돌파했다. 한방적 추 전문병원에서 100편 이상의 국제적 논문을 게재한 것은 이례적이다.

●334조 미래 글로벌 시장 선점 노력

자생척추관절연구소는 해마다 급성장하는 보완 대체의학 시장의 선점을 위한 연구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보완 대체의학은 현대 서양의학과의 대비되는 개념으로 보통 ‘CAM’(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으로 불린다.

미국의 시장 분석·컨설팅 회사인 그랜드뷰 리서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세계 보완 대체의학 시장 규모는 약 692억 달러(78조1268억 원)로 앞으로 8년간 19.9%의 연평균 성장률(CAGR)을 기록해 2027년에는 2960억 달러(334조1840억 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자생한방병원의 인적 물적 자원과 국내외 협력기관을 연계한 메디컬러스터를 구축해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의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녹십자와 척추 관절 질환 치료약인 국내 4호 천연물 신약 ‘신바로캡슐’을 공동연구해 시판하고 있다. 서울대 약대 천연물과학연구소와는 골밀도 감소를 억제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생약복합물 ‘연골보강환’(JSO G-6)을 공동연구해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이밖에 한방병원 임상시험 종사자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받는 등 한의학의 연구 저변을 넓히고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알피바이오, ‘시네트롤’로 건기식 시장 공략 높은 체지방 분해 효과 주목...다양한 제형 공급



알피바이오는 체지방 감소 기능 개별인정형 원료인 시네트롤을 주성분으로 하는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으로 건기식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알피바이오는 연질캡슐 일반의약품 국내 제조 1위 기업으로 세계 최대 연질캡슐 제조 기업인 알피체러와 대응 제약이 합작해 설립했다. 40여 년의 연질캡슐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최근 다양한 제형의 건기식 생산을 시작했다.

시네트롤은 자몽과 오렌지에 함유된 나린진과 헤스페리딘을 주성분으로 개발된 폴리페놀 복합추출물이다. 해외에서 기존 다이어트 원료 대비 높은 체지방 분해 효과로 주목받고 있다. 프랑스 파이텍시아가 유럽 특허를 받았으며, 국내는 알피바이오가 개별인정형 원료로 등록했다. 국내에서 파이텍시아의 시네트롤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제조는 알피바이오만이 가능하다.

최근 알피바이오는 한국암웨이에게 분말형 시네트롤 건기식 공급을 시작했다. 앞으로 정제, 분말, 스틱젤리, 액상 등 다양한 제형으로 시네트롤 건기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중앙대, 초대 중앙대광명병원장에 이철희 교수 임명



중앙대학교 학교법인인은 17일 초대 중앙대학교광명병원장으로 이철희 교수(사진)를 임명했다. 이철희 신임 중앙대광명병원장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사장, 대한수면학회 회장, 서울대보라매병원장, 한국병원경영연구원장, 경기국제의료협회장, 분당서울대병원장을 역임했다. 2017년 중앙대의료원의 새병원건립추진단장에 임명된 이후 광명병원 개원준비를 담당했다. 중앙대학교광명병원은 2022년 3월에 경기도 광명시에 개원할 예정이다.

명지병원, 심평원 유방암·위암 적정성평가 1등급

명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7차 유방암과 5차 위암 적정성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명지병원은 심평원의 평가가 시작된 이래 유방암은 1차부터 7차까지 7회 연속, 위암은 1차부터 5차까지 5회 연속 1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원발성 유방암, 위암으로 수술 받은 만 18세 이상 환자 진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명지병원은 위암 적정성평가에서 구조 부문의 전문인력 구성, 과정부문의 절제술 전 진단적 내시경 검사 기록률 등 8개 부문에서 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유방암 적정성평가에서도 6개 부문에서 100점 만점을 받았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차 의과학대학교, 日 CiRA 재단과 공동연구 협약 체결

헌팅턴병 등 신경질환 줄기세포치료 개발 연구

차 의과학대학교는 일본 교토대학교 CiRA 재단과 최근 유도만능줄기세포(iPSC)를 이용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CiRA 재단은 2012년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야마나카 신야 교수가 설립한 세계 굴지의 줄기세포 연구재단이다. 차 의과학대학교 의생명과학과의 송지환 교수는 CiRA 재단이 제공하는 연구용 및 임상등급 유



송지환 교수(왼쪽)와 야마나카 신야 교수.

CiRA 재단은 그동안 임상적응을 위한 세포주를 자국 연구자에게만 제공해 왔다. 일본이 아닌 나라의

도만능줄기세포(iPSC)를 이용해 헌팅턴병,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등 퇴행성 신경질환과 암 등의 면역질환에 대한 줄기세포 임상 및 치료제를 개발할 계획이다.

2013년 발표한 자생의 고유치료법 동작침법(MSAT)에 관한 RCT 연구는 급성요통 치료 효과가 진통제보다 5배 높다는 결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해 통증 분

연구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차 의과학대학교가 처음이다.

공동연구 한국 책임자인 송지환 교수는 “일차적으로 대표적인 유전성 퇴행성 신경질환으로 아직 치료법이 없는 헌팅턴병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일본은 iPSC 분야에서 기초연구와 임상적응 모두 가장 앞선 국가로 이미 임상에 사용 중인 세포를 도입하면 국내에서 임상에 들어는 막대한 노력과 비용을 절감하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체결된 공동연구협약은 과학 분야에서 양국간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김재범 기자

박경희의 운수 좋은 날

5월 20일(목) 음력: 4월 9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끼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용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음과 양의 기운이 서로 통하고 감응하는 운기이다. 이성을 만나면 길한 날이다. 운세는 좋은 때이며 직감에 호소하여 민첩하게 행동하면 효과를 본다. 첫 인상에서 좋게 느껴진 것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애정 운이 최고인 날이다. 용의 날이다.	고귀하면 고귀할수록 비천함에 봉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뛰어난 재능, 아름다운 용모는 겸허함으로써 더욱 빛나는 것이다. 매사에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되며, 지금은 재능을 감춰두고 조용히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능력이나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월살 또는 고조살이다.	물이 차지 않으면 배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시기가 올 때까지는 체념하고 기다려야 할 때다. 협력해 주는 사람을 기대할 수 없고, 홀로 자기 길을 가야 할 각오가 필요하다. 두 곳의 사업장이면 한 곳으로 합치면 좋겠다. 오늘은 반안일이다.	옛날 나라에서 제왕을 올려야 했던 날이다. 즉, 현재의 번영이 하늘이나 조상의 덕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계하는 의미이다. 사업인에게는 이익이, 직장인에게는 승진이 있는 날이다.	뜻을 달고 배가 물위를 가는 기운으로서 밖을 향해 큰 기운을 발산하고 대사업을 이룩해 가는 시기이다. 이제까지의 불운을 만회하고 격정이나 번민에서 해방되는 때이다. 하지만 너무 태만하다보면 모처럼의 행운도 놓치게 된다.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양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원숭이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닭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개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작은 일은 뜻대로 되지만 큰일은 중도에서 좌절되는 경우가 있다. 표면은 좋아보여도 내면적으로는 자신감이 없으며 현재 무슨 일이나 분명치 않아 단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때이다. 될 듯 될 듯 하면서 되지 않는다. 실망이 크다.	계절에 비유한다면 춘분에 해당하며, 굳은 얼음이 풀리고 만물이 일제히 싹을 때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과롭고 어려웠던 문제도 해결되고 새로운 출발의 시기가 온 것이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재빨리 호기를 붙잡아야 한다.	오늘의 형상은 저녁놀이 산전 초목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이다. 그런데 마음이 쓸쓸해지며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다. 물질이나 금전적으로 충분치 못한데도 호화롭고 사치스런 생활을 바라는 욕망이 강할 때이다. 검소 하라.	오늘의 기운은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고 인간으로는 장년기, 사업으로는 전성기를 나타낸다. 물론 뻗어가는 기운이지만 그만큼 책임은 무겁고 긴장이 끊이지 않는다. 사물은 성하면 쇠하는 법, 지나친 언동은 삼가고 항상 신중 하라.	봉사를 해야 하는 운기의 날이다. 눈앞의 작은 이익을 버리고 먼 미래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질적으로는 손해지만 그 행위로서 상대를 기쁘게 하고 남에게 덕을 입히는 것으로 나중에는 이익이 되어 돌아온다. 관재, 송사 조심해야 한다.	주변사람들과의 인화에 치중하며 자기의 소임을 다 해나가야 한다. 중상모략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너그럽게 용서해 준다면 결국 내 사람 될 수 있을 것이다. 취직은 좀 더 기다려라. 오늘은 원진상과 귀문관살을 만났다.						

오늘의 날씨				20일(목)	
서울	30/60	인천	30/60	춘천	20/70
	17 25		17 24		14 25
강릉	30/70	대전	60/60	전주	60/60
	18 24		17 22		17 21
광주	70/80	대구	60/80	부산	70/80
	17 19		17 21		18 20
창원	70/80	제주	100/6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16 19		17 22	최저	
				날씨	최고기온°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581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종철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